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12년 제12차 정기총회

- 일시: 2012년 1월 15일(일) 오전 11시
- 장소: 만해NGO교육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12년 제12차 정기총회

- 일시: 2012년 1월 15일(일) 오전 11시
- 장소: 만해NGO교육센터

글 심는 순서

제12차 정기총회

- 04 식순
- 05 회장 인사말
- 06 12기 총회준비위원회 경과보고
- 07 11기 활동보고
- 11 지부 활동 보고
- 14 11기 사업 평가
- 24 2011년 재정 보고
- 30 감사 보고
- 31 회칙 개정(안)
- 33 12기 사업 계획(안)
- 43 12기 건약 조직도
- 44 12기 예산(안)
- 47 회칙 전문
- 54 광전지부 2012년 사업계획

식 순

■ 1부 - 사전행사

- SNS 활용을 통한 시민운동의 발전방안과 사례
..... MBC 박대용 기자

■ 2부 - 정기총회

- 성원보고 및 서기 임명 총회 의장
- 민중의례 총회 의장
- 개회사 총회 의장
- 11기 회장 인사말 회장
- 참가지부 및 회원소개 회장
- 감사패 전달 및 회원표창 총회 준비위원장
- 12기 총회 준비위원회 경과보고 총회 준비위원장
- 11기 지부 활동보고 각 지부장
- 11기 사업평가 심의/의결 총회 준비위원장
- 11기 재정보고 사무국장
- 11기 재정/사업 감사 보고 감사
- 회칙 개정 총회 의장
- 임원 선출 총회 의장
- 12기 사업계획 심의/의결 신임 회장
- 2012년 예산안 심의/의결 신임 회장
- 폐회 선언 총회 의장

■ 3부 - 고사 및 뒷풀이

회 장 인 사 말

존 재 이 유

11기 회장 송 미 옥

트윗에서 본 말입니다. 백남준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뉴욕이 왜 좋아요?"

"더러우니까 좋지. 범죄가 많고."

"그래서 뉴욕이 좋으시다고요?"

"예술이 그래야 되니까. 인생이 썩으면 예술이 돼. 사회가 썩으면 예술이 돼."

누군가 건약에게 묻는다면?

"대한민국이 왜 좋나요?"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 살기 좋은 나라라서 좋아요."

"?????"

"변화가 있어야 할 사회니까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연대해야 하는 사회니까요"

너무 억지라고 구박마시라. 어쨌거나 건약의 존재 이유가 더더욱 분명해지는 사회인거 맞다.

건약이 좀 고되고 힘들더라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약사, 약국은 건약일 것이다.

또 한 매듭짓는 오늘은 이런 사회에 답하는 새해 첫 날이 될 것이다.

지난 건약보다 힘들게 출발하는 12기가 지치지 않고 올곧은 의지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항상 추운 날씨에 출발하는 건약은 이제 슬슬 기지개를 켜 일만 있을 것이다.

힘내자 12기!!



12기 총회 준비위원회 경과보고

- 총회 준비위원장 : 신형근
- 총준위 구성 : 중앙 집행위원회 및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으로 구성
- 총준위 1차 회의 : 2011년 11월 10일
총회까지의 준비 일정 확정
- 총준위 2차 회의 : 2011년 11월 17일
건약 조직현황 및 발전방향 논의
- 총준위 3차 회의 : 2011년 12월 1일
각 부서 평가 - 정책실
- 총준위 4차 회의 : 2011년 12월 8일
11기 사업 기조 평가, 조직국 평가
- 총준위 5차 회의 : 2011년 12월 15일
2012년 전망 및 조직구성 논의
- 총준위 6차 회의 : 2011년 12월 22일
12기 사업기조 확정 / 조직인선
- 총준위 7차 회의 : 2012년 1월 5일
각 부서별 사업계획 확정 및 총회 실무 준비
- 2012년 1월 15일 제 12차 정기총회

보고 자료 11기 2차년도 활동 보고

□ 성명·논평·기자회견

- [논평] 식약청의 IPA 제제 조치에 대한 건약의 입장 (1/12)
- [기자회견] 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유럽FTA 당장 중단하라! (3/02)
- [성명] 건강보험료로 제약회사 지원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폐기해야 한다. (5/04)
- [성명] 약사법개정(의약품슈퍼판매)을 중단하라. (7/05)
- [논평] 정로환의 주성분 ‘크레오소트’ 성분 퇴출에 대한 건약의 입장 (7/20)
- [성명] 일반의약품 약국의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8/01)
-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8/11)
- [성명]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약국영리법인 법안은 폐기해야한다. (8/11)
- [공동성명서]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 선언문 (8/22)
- [공동성명서] 망국적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거부한다. (8/22)
- [성명] 제10차 아시아태평양에이즈회의(ICAAP10)에 참가한 HIV/AIDS 감염인 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며, 이들에 대한 반인권적,폭력적 행위를 규탄한다. (8/29)
- [성명]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반대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개토론회를 제안 한다. (9/01)
- [기자회견]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및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기자회견 (9/15)
- [공동성명] 성추행 고대의대생 출교 촉구 (9/16)
- [의견서]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0/12)
- [성명]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10/25)
- [성명] 약가폭등 초래할 한미 FTA와 약사법 이행법안 보건복지위 상정을 반대한다! (10/26)
- [기자회견] 약가폭등, 의료비 폭등, 영리병원 허용 한미FTA 폐기하라! (10/31)
- [논평] 피오글리타존 제제(상품명:액토스®)에 대한 건약의 입장 (11/07)
- [기자회견] 2012년, 반드시 편성돼야 할 민생복지예산 요구안 발표 (11/07)
- [기자회견] 건강보험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김종대 공단 이사장 임명반대 (11/11)
- [성명] 김종대씨의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내정은 절대 불가하다. (11/14)
- [의견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1/17)
- [기자회견]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 기자회견 (11/22)
- [공동성명] 매국협정 날치기 이명박-한나라당 규탄한다! (11/22)
- [성명]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는 밀실협상으로 진행되는 안된다. (11/23)
- [기자회견] 한미FTA폐기, 인도-EU FTA협상 중단, 노바티스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1/28)
- [공동성명]의인성 CJD 발병, 정부는 사전예방법칙 준수와 철저한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불식 시켜야 한다. (11/30)
- [기자회견] 한미FTA폐기, 한국 에이즈정책 26년 공개평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12/01)
- [공동성명] 인천공항철도 비정규직 시설 노동자 5명 산재사망, 철도업무 도급화와 인력부족

이 핵심 원인이다! (12/09)

[공동성명] 청소년 건강권과 인권은 그 어떤 외압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선 안 된다. (12/15)

[논평] 대한약사회와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의 판매에 대한 밀실험상을 즉각 중단하고 야간, 휴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2/29)

[성명서]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에 대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 (12/29)

□ 적색경보 · 약자지결 · 뉴스레터

[건약의 약자지결#2] 아이에게 처방약을 안전하게 먹이는 9가지 규칙 (2/20)

[적색경보 14호] 정로환은 안전합니까? (3/27)

[뉴스레터 1] 미국,일본,유럽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실태 및 약국영리법인에 대하여 (8/30)

[뉴스레터 2] 유럽에서의 병원약국 서비스의 변화 (10/07)

[적색경보 15호] 방광암 위험이 있는 액토스®, 계속 사용해야 하나? (11/01)

□ 회지 · 출판사업

회지 '건약' 봄, 겨울호 발행

'건약이 알려 주는 약 이야기'(가제) 출판사업 진행 중

□ 주요활동 - 중앙

<1월>

1월 11일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 - 주승용 의원실, 신형근 부회장 패널로 참여

1월 11일 공단 조찬포럼 '약국 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 홍춘택 참여

1월 17일 '대형병원 약값 환자부담 2배 인상' 반대 기자회견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1월 23일 건약 11기 대의원 총회

<2월>

2월 25일 [건약포럼] 우리에게 복지는 가능한가?

<3월>

3월 2일 인도-EU FTA global action day 기자회견

3월 13일 11기 1차 중앙위원회

3월 17일 YMCA 워크숍 강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입장'

3월 19일 - 20일 2011 보건의료 진보포럼

3월 22일 - 31일 건약 약사교실
 3월 31일 [건약포럼] 무상의료, 그 논쟁의 핵으로!

〈4월〉

4월 2일 건약발전특별위원회 1차 모임
 4월 15일 보건의료단체연합 긴급회원토론회 ‘핵 발전과 인류의 건강과 생명’
 4월 16일 건약발전특별위원회 2차 모임
 4월 29일 보건사회약학연구회 ‘의약품의 접근성’ 토론회 - 신형근부회장 토론자로 참여
 4월 29일 [건약포럼] 중동민주화, 의의와 전망

〈5월〉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 전 무상의료 캠페인
 5월 14일 건약발전특별위원회 3차 모임
 5월 16일 산재노동자 연대 한마당
 5월 21일 11기 3차 중앙위원회
 5월 22일 상반기 회원행사 ‘백제기행’
 5월 28일 건강한 약사상 재정립을 위한 합동토론회- 신형근 부회장 패널로 참여

〈6월〉

6월 14일 복녃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선언 참여
 6월 30일 [회원토론회] 변화기를 맞은 대한민국 약사, 약국.
 그 속에서 건약이 나아갈 길을 묻다

〈7월〉

7월 2일 보건의료단체연합 10주년 기념토론회 ‘한국 무상의료로 가는 길’
 7월 14일 HIV/AIDS 감염인 수술거부 관련 기자회견
 7월 15일 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일반의약품 약국의 판매에 대한 공청회’ 참관
 7월 20일 일반의약품 약국의 판매에 대한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8월〉

8월 21일 11기 4차 건약 중앙위원회
 8월 22일 한국철도공사 노숙인 퇴거대책 철회 촉구 <보건의료인 선언> 기자회견 참여
 8월 31일 ‘영리병원도입과 의료민영화의 첩병이 될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 성명 발표 - 보건의료단체연합

〈9월〉

9월 15일 일반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관
 -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주최

〈10월〉

10월 5일 보건의료단체연합토론회 ‘현장에서 본 의료상업화와 기업화, 그 극복방안’

- 신형근 부회장 토론자로 참여

- 10월 12일 약사법 개정을 막기 위한 2011년 하반기 투쟁 계획 토론회
- 약계현안을 고민하는 약사,약대생모임 (건약, 늘품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 10월 15일 11기 5차 중앙위원회
- 10월 16일 [하반기회원행사] 전국회원토론회
- 10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 - 흥춘택 발제
- 10월 28일 의약품제조소 공장등록제 도입방안에 대한 식약청 자문회의 참석

<11월>

- 11월 3일 개성 의약품 지원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함께
- 11월 27일 건약 아고라
- 11월 28일 한미FTA폐기, 인도-EU FTA협상 중단, 노바티스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2월>

- 12월 1일 한미FTA 비준무효 5,000인 선언 참여
- 12월 1일 한미FTA폐기, 한국에이즈정책26년 공개평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12월 6일 김종대퇴진, 한미FTA 폐기 기자회견
- 12월 8일 의료민영화 반대, 한미FTA 폐기 기자회견 - 헌법재판소 앞
- 12월 10일 회원 송년회
- 12월 23일 쌍용자동차 희망텐트 의약품 지원

□ 연대회의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 촛불문화제 참여
99% 행동 준비회의 - Occupy Seoul 집회 참여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 국민연대
희망버스 참여

보고 자료**지부 활동 보고****광전 지부****1. 3월 신입약사교실** - 학부사업과 연계해서 홍보를 다각화 하자

첫번째 강의 참가자-총 8명(전대4,조대2,성균관대1,부산대1)

두번째 강의 참가자-총 7명(전대5,성균관대1,조대1)

세번째 강의 참가자-총 4명(전대3,성균관대1)

네번째 강의 참가자-총 6명(전대 5,성균관대1)

- 네강의 전부 들은 사람은 성균관대 출신 1명입니다.
- 지난해보다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지 못했다.
- 작년이랑 별 차이점은 없는데, 작년에는 김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것 때문이었나 생각도 해봅니다.
- 스터디 멤버들로 강사진을 구성한 것은 성과임.(결속력이 좋아짐)
- 스터디로 자연스럽게 영입하기가 힘들었다(성균관대만 신입약사 스터디로..)

2. 틱움키움

- 여약사회랑 연계해서 강사진을 좀 더 알차게 꾸려 내년에는 의약품 안전성 강의를 강화하자(선생님대상, 아이들 대상으로 나눠서)
- 4월 중 설문조사 완료. 영양제가 좀 컸다, 약물교육이 성과점이 많다, 구급약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상반기 영양제 한번+구충제, 하반기 구급약품+구충제로 배포하고 약물교육을 마쳤음.
- 약물교육이 공부방 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점이 아쉬운 점임.
- 공부방 선생님과 간담회 준비를 못한 것이 아쉬운 점 중 하나

3. 기존의 제형변경

- 비부서회원과 함께 소포장이나 부작용보고로 방향을 선회하자.
- 중앙 건약에서 여러 사례를 모집하고 있으니 추이를 지켜보고 중앙건약과 함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약사법 재개정과 관련해서 바쁜 관계로 실상 중앙건약이 새로운 아이템 제출을 못하였다
- 일단 시립병 규격문제부터 접근해서 회원 실험실에서 실험도구 가져와서 얼마나 규격차이가 틀린지 실험해봤는데 안타깝게도 눈에 뵈만한 차이가 없었음.

4. 임상스터디

- 일단 진행된 거 마무리하고 스터디 책임자들끼리 한번 더 의논하기로 함.
- 지금 현재 두 개로 나뉘어서 진행 중이나 경력약사 스터디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한계에 많이 봉착하여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고민 중임.

5. 전체회원모임

- 취미모임내용을 언제든지 와도 참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 나름대로 성과가 있긴했다.

1) 운영위 없는 첫째주(2달에 한번)에 '살뜰회원'과의 자리를 갖겠습니다.
살뜰회원 선정 및 만남의 형태, 장소, 얘기꺼리 등을 미리 잘 짜야겠습니다.

2) 매달 셋째주에는 '문화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취미활동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3) 다섯째주(3달에 한번)에는 지역내 이슈현장 방문이나 초청강연,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따라서 문화아카데미의 테마를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정해야겠습니다.

- 원칙 : ① 모든 회원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항상 넘쳐날 정도의 재밌는 것이어야 한다.
② 강사섭외나 장소가 용이해야 한다,
③ 1년후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6. 약사법 재개정 관련

- 건약의 입지를 많이 높혔다.

7. 약대생 대상 의료민영화강좌

8. 근로정신대시민모임 탐방 및 희망릴레이활동

9. 예방주사, 찾아가는 산부인과, 수화, 의료관광 등 광주시 보건의료 정책 관련 활동 함.

대충 지부

올 해는 대전지역 내에서의 정기적인 모임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중앙위나 전 건약 차원의 전국 행사에도 지부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였다. 지부장 자체도 지부 활동을 이끌어내려는 노력 역시 부족하였으며, 회원들의 의지도 보여 지지 않는 해였다.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지역과의 연대 활동은 있었는데, 희망진료센타에서 회원 봉사 활동은 올해에도 계속 이루어졌다. 보건의료단체 연대회의(건약, 건치,인의협, 청한, 희망진료소)에서 “퇴움과 키움”사업으로 대전지역 내 지역 아동 센타를 한군데를 선정. 아동들 건강 상담 및 진료, 교사 교육 등을 작년 하반기에 진행하였고, 올 상반기에는 5개구에 1군데씩의 지역 아동 센타 5개를 선정. 협약식을 거쳐 작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회원단체 회원만으로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서 지역 내 관심 있는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함께한 지역 아동 센타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의된 내용은 향후 사업 진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건약에서는 진료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교사교육 시 “올바른 약 사용법”에 대한 강의 및 비치할 구급함을 준비하였다. 향후 건약 자체적으로 센타 아동들 대상으로 “의약품 오,남용”과 관련된 교육진행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만한 내용이 라 생각된다.

보건의료단체 연대회의는 월 운영위를 갖고, 4회에 걸쳐 포럼을 진행하였는데, 내용은 4월-무상의료의 배경, 개념, 지역 사회 차원의 운동 방향, 6월-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건강, 10월-한의학 민영화 현황과 극복 과제, 12월-무상의료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지방의료원 어떻게 살릴 것인가로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충남지역 유성기업 파업 시에는 의약품 지원과 더불어 지지 방문을 했다. 건약 마지막 모임에서는 지역 내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2차 진료소 개원과 관련된 진행 상황 공유와 함께 약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얘기 나누어 보았다. 12월 들어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활동에 결합하면서 지역 촛불 집회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새로운 신입회원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자체 사업 진행 등 활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건약아고라에서 참석하여, 이에 대해 얘기 나눌 수 있었는데, 기존 회원들의 활동을 이끌어내고, 함께 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과 논의가 대충지부 자체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안건 자료 11기 사업 평가

11기 사업기초 총괄평가

1. 의료민영화 저지와 평가

2010년/2011년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시장화 정책을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의료민영화 5대 악법 추진이었다.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법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및 광범위한 영리행위 허용(MSO포함), 의료기관 채권법을 통한 사실상의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도 특별 자치도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파상공세라 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입안은 2008년 촛불항쟁 이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보건의료운동세력의 끊임없는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에 힘입어 5대 악법의 무력화에 많은 부분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미 FTA 국회통과를 계기로 의료 시장화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이명박 정부의 지금까지의 성공이라면, 앞으로 2012년 선거와 투쟁을 통해 한미FTA 무력화가 의료 시장화를 막는 관건이 되고 있다.

2. 의약품 가격 정책의 변화 대응

2006년12월 도입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2010년 의약품 목록정비 포기과 시장형 실거래가 도입, 이 후 가격인하로 방향을 선화한 후 2012년 4월 가격일괄인하를 앞두고 있다. 2010년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제도 안착화에 주력해야 했던 보건당국이 2010년 7월 갑작스런 정책선회는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다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평가도 없이 일괄인하 방안으로 다시 한 번 틀 바꿈을 하는 등 불안정한 급여약 관리정책을 내놓고 있다.

2010년 7월 건약과 노동 시민단체는 목록정비 사업의 포기없는 급여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의도적인 무대응과 건정심의 밀어붙이기식 방식으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1년 느닷없이 일괄인하 방안을 내놓아 제약업체와 갈등을 드러내며 스스로의 정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형국이다.

2011년 의약품 가격 정책의 방향에 대해 시장형 실거래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던 건약은 이 후 정부의 일괄인하 방안에 대한 건약 내부 입장정리를 아직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3.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

2011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불가 원칙이 하루아침에 바뀐 이명박의 정책지시에 따라 2011년 하반기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 대응으로 급선회하였다.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을 통해 추진하려던 약국법인의 도입과 일반인 약국 개설허가 제도 등은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과 더불어 추진동력이 많이 무력화 될 무렵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의 부상은 약국과 약사만의 문제로 전체 보건의료과제와 고립적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전방위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거부하고 함께 투쟁하던 건약은 2011년 6월 노동,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단체 등과 따로 또 같이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였다. 2011년12월 출범예정 이었던 종합편성채널 광고시장 확대에 의약품 광고 확대의 노림수가 있음을 홍보하고, 의약품 안전성 관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을 문제 삼았으며, 더불어 약사와 약국의 대국민서비스 개선요구를 같이 진행해 나갔다.

그리하여 2011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예정이던 의약품 3분류를 통한 약국외 판매의약품 결정은 보건복지 상임위 미상정으로 결정하지 못했으나 이 후 대한 약사회의 퇴보와 정부의 의지불변으로 지금도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보건의료 공공성 확장을 위한 운동의 전개와 현황

무상급식운동을 시작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하였으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재확인하며 2012년 선거를 통한 복지정책 확대 요구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보건의료운동은 지난 이명박 정부 4년간 파상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및 입법저지 투쟁을 통해 확인한 보건의료 보장성 확대 요구를 이제는 “무상의료”담론으로 만들 것을 합의하였고 2011년 11월 “무상의료 국민연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끊임없이 의료민영화를 시도하는 현 정부는 의협을 앞세운 통합건강보험 해체의도 까지 진행되고 있어 2012년 1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 통합 10년을 넘기면서 보장성 확대 및 무상의료의 기반이 되어야할 건강보험이 최대 기로에 놓여있는 것이다.

5. 의약품 공공성 확대 기초의 변함없음을 확인하며

건약은 지난 10기 11기를 통과하며 우리의 운동방향으로 의약품 공공성운동을 채택하였다. 의약품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과제로 약제비 적정화방안, 특허와 데이터보호 등 독점강화의 무력화, 필수약품의 접근성 강화, 비급여 의약품 해결 등의 의약품 접근성 운동과 제약

자본 및 국가의 의약품 안전 관리 책임과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의약품 안전성 운동을 중심에 두고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평가는 정책실 평가를 통해 언급하겠으나 11기 정책 사업 및 대응 방안 논의가 힘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정책실 사업 평가

1. 정책실 2011년 사업계획 및 사업 방향

1) 정책방향

- 2008년 건약 10기를 시작하면서 설정한 ‘의약품 공공성 확대’ 라는 목표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이다. 그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의약품 안전성 운동 및 접근성 운동을 두 축으로 진행하였다.

- 적색경보의 꾸준한 발행, 그 후속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토 및 대안마련,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한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후속 작업 및 노보세븐, 푸제온, 타미플루 등의 구체적인 약제의 공급을 위한 여론화작업 및 법적, 제도 마련차원으로 필수약품의 계획적인 공급에 대한 내용검토까지 진행하였다.

- 여전히 접근성 및 안전성을 두 축으로 가져가는 방향은 유효한 상황이다.

그러나, 2009년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으로 나온 일반인약국개설, 의약품 슈퍼판매, 영리법인 허용 등 약국, 약사 등 의약품과 관련된 현안으로서의 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전의 의료민영화논의는 ‘약’ 또는 ‘약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흐름이었으나 현재는 의약품 유통 및 소비 영역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의약품 안전성 및 접근성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의약품의 사회적 함의를 폭넓게 아우르는 의약품 공공성 측면에 대한 실현방안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보건의료관련 사안은 연대체를 통하여 우리 관심분야는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활동하였다. 하지만 그간의 의료시장화 논의과정에서 ‘의약품 유통 및 소비’를 중심에 두고 가는 측면보다는 개론적인, 구체적인 사안별로 접근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의료시장화와 대별되는 지점에서의 ‘의약품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라는 흐름으로 ‘의료시장화’에 대응할 필요 있다. 의

약품 이슈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에 대한 고민과 논의 필요하다.

2) 주요 사업계획

1) 의약품 안전관리 모니터링

목표: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의약품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안임을 사회에 이슈화 하며 국가가 그 안전성 관리체계의 중심기관임을 알려냄. 또한 의약품 안전성 체계에서의 일관된 건약의 방향성 수립.

사업내용 ;

- 정기적인 적색경보, 약자지껄 발행 및 후속작업 (공공기관 및 제약기업의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follow-up 및 대응)
- 임상시험, 시판후 조사(PMS), 재평가 및 오프라벨 마케팅, 의약품 허가 과정 전반에서의 문제점 모니터링 및 공론화작업
- 지역약물 감시센터 참여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 모니터링

2) 의약품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

목표: 2009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 소비에서의 시장확대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 및 여론화.

사업내용:

- 필수약품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
 - ① 백신, 타미플루, 푸제온 등으로 이슈화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 ② 강제실시를 포함한 특허 부분에 대한 세밀한 연구작업
 - ③ 강제실시 이외의 대안으로서 계획 생산에 대한 내용마련 및 사회공론화를 통한 제도화 작업
- 의약품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개발을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내부세미나, 포럼 등)

3) 약제비 적정화방안 대응방안

목표: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중단과 약가재평가 폐지로 이어지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후퇴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으로 인한 상황과 피해를 리뷰하고 기존의 약제비 적정화방안 내용을 보강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

사업내용 :

-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세부내용 검토를 통한 정책 개발(의약품 유통부문, 의약품 사용량 억제 방안, 약가산정기준 등)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신속평가로 이루어지는 목록정비 사업 리뷰와 평가, 약가협상등 약제비 제도에 관련한 대응과 대안 마련

2. 정책실 사업 내용

- 약자치결 2회 발행(어린이 약 잘 먹이는 방법, 제로정),
- 적색경보 2회 발행(정로환, 액토스)
- 적사모 활동
-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토론회 개최와 성명서 및 의견서 제출
- 약국영리법인 반대 성명
- 연대 활동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료민영화 저지활동, 한-미 FTA 저지활동

3. 정책실 총괄 평가

- 2011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책실을 꾸려나가는 구성원이 현저히 적어졌다는 것이다. 2011년 4월, 5월 정책을 담당하던 상근자들이 부재하고 정책실 구성원들도 개인적인 사정이 겹치면서 실제로 회의를 꾸려나가기 힘들만큼 어려운 사정이었다.
- 실제로 8월 달까지 새로운 상근자가 들어오기까지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고 8월 달 상근자가 생기면서 조금씩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 1년 전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적색경보나 약자치결을 통한 안전성 과제에 대한 성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과제는 수행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급부상 함으로 인하여 전 건약 차원에서 이 문제에 그나마 있는 역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정책실이 설정한 과제는 수행할 수가 없었다.
- 구성원의 문제는 앞으로도 정책실의 향후 방향과 더불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책실 과제와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같이 고민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건약의 안전성, 접근성 관련 주제는 여전히 유효한 과제이다. 그리고 11기에 넘어오면서 의약품의 유통, 의약품의 공공성을 좀 더 외화 시키자 라는 방향성을 내놓았으나 추상성에 그쳤다. 그러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라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약사의 의미 약국을 통한 공공성의 확대라는 인식의 확대 등이 일정부분 있었고 약국의 모습과 약제 서비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 부분을 통한 공공적인 측면을 강화시킬 수 있는 초보적인 고민을 가져올 수 있었다.
-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영역에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내고 해결을 하기에는 능력도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의 성격상 안정적으로 고민을 천착해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건약 내부에서 모든 것을 소화해내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판단된다.

- 정책실 조직 체계가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을 해보아야겠으나 우리 건약 내부적 과제, 약사사회와 관련된 과제, 보건의료 관련된 과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구성원들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할 것이다.

- 향후 우리의 정책적 과제는 외부의 다른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일을 수행하는 형태로 가는 것으로 가야할듯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상당부분 많은 일들을 다른 외부인사와 사업을 같이하나 사업기획과 토론회 기획, 간담회 기획 등을 만들어서 제시하면서 일을 수행하는 것만큼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과제들은 외부인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다.

- 안전성, 접근성 관련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그동안 많이 수행하였고 더 이상 획기적인 대안마련은 힘든 상황이다. 뭔가 새로운 대안마련을 위해 소모적인 고민을 수행하는 것보다 현안에서 요구하는 과제에 대하여 입장을 내고 유연하게 대응을 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가 기동력 있고 판단을 잘해야겠지만)

조직국 사업 평가

1. 기초평가

제11기 조직국 사업기초는 1)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2)건약 회원들과 이웃 약사들, 시민들에게 건약의 정책 및 활동 등을 꾸준히 알려내기, 3)연대활동을 통한 한 걸음씩 나아가기였다.

지난 2년 동안 조직국에서는 월례포럼이나 전국행사 등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힘써왔으며 및 건약의 정책 내용을 회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꾸준히 회원들에게 알려내고자 애써왔다. 더불어 약계단체인 약준모와 늘품약사회, 학생단체인 전약협과 비정기적인 회의체 구성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사안이 있을 때 함께 모이는 등 연대관계를 맺어 왔다.

조직국의 역할과 활동 대상은 회원사업과 대약사 및 시민사회 사업이다. 이에 앞으로는

보다 더 건약과 지부, 회원들 간의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사업평가

기초에 따라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월례포럼, 전국행사 등을 진행했으며, 건약 정책 및 소식을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회지와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에 진출하는 새내기 약사를 대상으로 건약 약사교실을 진행하였다. (광전지부에서도 진행)

(1) 월례포럼

1) 목적 : 보다 많은 회원들이,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범위를 넓히고, 회원들이 관심 있는 내용과 건약이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알아야하는 다양한 주제를 선별하여 진행

2) 내용

- 복지국가 스웨덴(2월), 무상의료(3월), 중동의 민주화(4월)
- 일반약 약국의 판매(6월, 아프리카 TV 이용하여 전국토론회형식으로 진행)
- 5월 10월은 전국행사로 대체
- 8월 및 9월은 건약뉴스레터로 진행

(*건약뉴스레터 : 회지의 경우 년 2회 발행으로 현재의 이슈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달 1회씩 주요한 이슈나 내용을 영상이나 음성파일 및 문서를 홈페이지 게재)

3) 평가내용 : 올해 화두인 복지국가 및 무상의료에 관한 포럼을 진행하였으나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참여 부족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현상 이다. 하지만 4월의 중동의 민주화 경우 외부전문가의 초빙에 따라 해당내용에 관심 있는 일부 회원들의 참여가 있었으며, 6월의 전국토론회 경우, 일반의약품 약국의 판매라는 약계의 빅이슈에 따른 비교적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했으며, 광전과 울산 및 대경지부에서도 아프리카를 통해 토론에 참여하였다. 향후 아프리카 TV 등 온라인 프로그램 등은 물리적인 시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4) 개선방향 : 회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온라인을 이용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들이 직접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예전의 책 저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등 기발한 기획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2) 전국행사

- 1) 목적 : 매년 2회 진행하는 전국행사는 전국 건약 회원들이 모여 함께할 수 있는 자리로 회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와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친목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 평소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ex. 답사, 체육대회 등)
- 2) 내용 : 토론회 2번, 답사 2번 진행 (2011년 상반기는 백제문화답사 / 하반기는 회원 토론회)
- 3) 평가내용 : 2번의 답사를 통해 회원과 회원식구들의 참여 및 평소에 활동이 적었던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다만 참여했던 회원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답사와 토론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다음번 행사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행사에 중앙 및 지부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 4) 개선방향 : 지부회원들과 중앙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며, 시기에 적절하게 토론회와 답사, 체육대회 등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3) 회지발행

- 1) 목적 : 정기적인 회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주요 활동 소식과 회원들의 소식들을 갈무리하여 전달하며, 건약회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
- 2) 내용 : 연 2회 발행함
- 3) 평가 : 10기와 마찬가지로 건약의 활동내용 및 정책내용, 정세, 이슈 및 지부 및 회원들의 소식 등으로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평이한 편이며, 회지 필진 폭이 다양하지 않았다. 올해 경우는 회원들을 대상을 10문10답 등 다양한 회원들의 얘기를 회지에 담아 내지 못했다.
- 4) 개선방향 : 소식지로서 회원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회지에 녹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약 내부의 활동들이 활발해짐으로써 회지에 담을 내용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참신한 기획을 통해 회지에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있다.

(4) 약사고실

- 1) 목적 : 새내기 약사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참약사의 역할, 참약사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배울 수 있는 강좌 기획. 더불어 건약과 함께할 수 있는 회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 향후 건약의 내용들을 되새길 수 있는 새내기 약사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
- 2) 내용 : 중앙과 광전지부에서 진행하였다.
 - 중앙에서는 건약 정책등 약사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통해 2주간 4일 동안 8강 진행
 - 평균 5~6명 참석하였으며 2명 수료
 - 현재 1명 건약회원으로 활동
- 3) 평가 : 당시 역량으로서 할 수 있는 홍보를 진행하였지만 한계가 있었다. 인맥을 통한 조직이 부족했으며 향후 이를 보강할 필요 있다. 지난 약사고실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약사들이 있지만 활동회원으로서 남는 경우는 드물었다. 강좌에 참여한 약사들과 강좌 이후에 함께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고 (새내기)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4) 개선방향 : 평가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약사고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사들과 약대생들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건약에서 약사/약대생들과 함께하고 싶은 내용들을 참여하고 싶을 수 있도록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강좌방식과 강좌준비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5) 연대활동

- 1) 목적 : 건약이 지향하는 바를 추구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 및 사람들과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모색한다.
- 2) 내용 : 사안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 약고모 토론회 진행, 올해는 대약을 상대로 약사법 재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3) 평가 : 약고모 모임은 계속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연대하는 것으로 하고, 건약은 내용과 방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대 사업 평가

- 상시적인 연대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의료민영화반대범국본, 건강연대 사업이 진행되었다. 건강연대는 2011년 상반기 대표자회의를 통해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본으로 사업을 일원화하였다.
- 2011년 의료민영화반대범국본은 건약 내 상근자의 불안정성으로 지속적인 회의 참석을 못하였으며 보건의료단체 연합 운영위와 정책위를 통해 내용 및 투쟁방향을 결정하였다.
- 의약품 공동행동의 사업 및 투쟁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간헐적으로 환자단체 및 건강세상네트워크 등과 함께 공동 성명서 제출 및 국제연대 사업을 진행하였다.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운영위 및 정책위 회의에 상설적으로 결합하여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및 한미FTA 관련 투쟁 사업을 연대하였다.

안건 자료

2011년 재정 보고

1. 세입결산

2011년 세입 결산			
내역	수입예산	수입결산	집행율(%)
1. 서경회비	60,000,000		87.9
2.분담금	20,160,000	20,160,000	100.0
광전지부	5,760,000	5,760,000	
대경지부	3,720,000	3,720,000	
대충지부	3,720,000	3,720,000	
부경지부	3,720,000	3,720,000	
울산지부	3,240,000	3,240,000	
3. 회지후원금	3,360,000	3,520,000	104.8
4. 모금	3,000,000	3,150,000	105.0
5.기타	4,800,000	1,405,505	29.3
계	91,320,000	80,968,925	88.7
전년도이월금	19,584,181		

(단위 : 원)

2. 세출 결산

2011년 세출결산			
내역	지출예산	지출결산	집행율(%)
1. 경상비	72,774,620	44,878,317	61.7
인건비	51,800,000	30,053,759	58.0
사무실운영비	6,088,764	6,629,170	108.9
우편통신비	2,592,132	1,621,774	62.6
지급수수료	1,898,780	1,270,371	66.9
간사활동비	796,944	631,900	79.3
퇴직금적립	4,800,000	2,200,000	45.8
보험료	4,800,000	2,471,343	51.5
2. 조직활동비	9,600,000	7,027,410	73.2
3. 정기분담금	11,460,000	10,260,000	89.5
4. 연대사업비	4,800,000	1,234,400	25.7
5. 모금지출	3,000,000	4,265,000	142.2
6. 예비비	9,269,561		
계	110,904,181	67,665,127	61.0

차기이월금

34,792,979

(단위 : 원)

3. 자산 보고 (단위 : 원)

■ 2011년 결산 통장 잔고 내역

2011년 통장, 현금잔액		
은행명	잔액	비고
씨티은행	37,950,879	적립금통장 CMS
하나은행	70,615	
신한은행(남)	103,225	지출전용계좌
국민은행(홍)	35,356	
국민은행(남)	320,575	
국민은행(건약)	9,718,224	
우리은행(남)	45,458	
농협(남)	151,628	모금계좌
국민(육혜경)	7,679	
현금	177,710	
계	48,581,349	

■ 2011년 적립금 및 총 자산

적립금	
내역	금액
퇴직금적립	5,602,655
춧불집회모금	940,500
20주년발전기금	7,205,370
계	13,748,525

총자산	
내역	금액
전세보증금	37,000,000
적립금	13,748,525
2011년 결산	34,792,979
계	85,541,504

4. 재정 운영 보고

1) 운영

- 올해는 5월 중순 이후부터 7월말까지 상근자가 없어 상근자 급여 등 활동비, 4대 보험료 등이 예산보다 작게 지출되었다.
- 상근자의 부재와 건약 활동의 침체로 마찬가지로 사업비의 지출이 예산안 보다 작게 지출되었다.
- 회비 수입이 작년에 비해 12% 정도 감소하였다. 회원의 회비 납부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전체적으로 인건비, 사업비 지출이 적어 차기년도 이월금이 34,792,979원으로 많이 남겨졌다.
- 그러나 12기에 상근자가 1명 추가되어 2명 구조가 되면 회비로 상근자 급여 정도만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출 항목 설명

- 강아라 전 사무국장이 3월말 출산으로 퇴직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상 11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부탁하여, 4대 보험이 계속 지출되었다. 전 사무국장의 4대 보험료 지출비용을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형식으로 하여 처리하였다.

- 사무실운영비가 예산에 비해 초과된 것은 MRM 이라는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여 691,900원의 예상외 지출이 발생하였고, 컴퓨터 수리를 비롯한 지출이 초과하였다. 그러나 MRM의 설치는 장기적으로 보면 회원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문자전송비용이나 금융결제원 수수료가 적게 들어 전체 지출은 줄어든다고 판단하였다.

- 장부잔고와 실 잔고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4대 보험료는 매달 금액이 다르게 청구되나 장부상에서는 매월 같은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계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 연간 수입 내역

전년도이월금 19,584,18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합계	월평균	비율(%)
1. 회비	6,319,740	6,234,720	5,805,560	5,709,960	6,009,960	5,800,200	6,509,600	6,068,680	6,300,000	6,245,000	6,105,000	6,285,000	73,393,420	6,116,118	88.9
서경지부	4,639,740	4,554,720	4,125,560	4,029,960	4,329,960	4,120,200	4,829,600	4,388,680	4,620,000	4,265,000	4,425,000	4,405,000	52,733,420	4,394,452	63.9
광전지부분담금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5,760,000	480,000	7.0
대충지부분담금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720,000	310,000	4.5
대경지부분담금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720,000	310,000	4.5
울산지부분담금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3,240,000	270,000	3.9
부경지부분담금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720,000	310,000	4.5
특별회비										300,000		200,000	500,000	41,667	0.6
2. 회지후원금	280,000	330,000	260,000	290,000	280,000	290,000	300,000	29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520,000	293,333	4.3
3. 모금	0	230,000	1,000,000	0	1,860,000	60,000	3,150,000	262,500	3.8						
희망버스								230,000					230,000	19,167	
이소선장례위									1,000,000				1,000,000	83,333	
FTA반대선언											1,860,000		1,860,000	155,000	
핵부지선언												60,000	60,000		
4. 특별모금	0	1,115,000	1,115,000	92,917	1.4										
북한밀가루지원												1,115,000	0		
5. 행사수입			100,000		300,000							470,000	870,000	72,500	1.1
6.기타	271,200	44,630			1,951	6,689		2,292	4,467	37,876	89,015	77,385	535,505	44,625	0.6
합계	6,870,940	6,609,350	6,165,560	5,999,960	6,591,911	6,096,889	6,809,600	6,590,972	7,604,467	6,582,876	8,354,015	8,307,385	82,583,925	6,881,994	100.0

■ 연간 지출 내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합계	월평균	비율 (%)
1. 경상비	6,433,354	5,525,418	5,481,623	3,338,212	2,206,731	1,265,591	1,191,940	3,448,360	4,951,457	3,501,367	3,825,092	3,709,172	44,878,317	3,739,860	66.3
인건비	4,800,000	3,900,000	3,900,000	2,140,720	1,237,469	616,330	615,830	2,290,430	3,080,970	2,480,470	2,495,770	2,495,770	30,053,759	2,504,480	44.4
사무실운영비	515,500	370,000	489,870	808,460	373,200	335,000	335,000	679,740	1,129,610	425,000	548,000	619,790	6,629,170	552,431	9.8
우편통신비	138,710	158,724	106,610	93,340	306,010	124,770	130,220	76,500	168,600	78,300	177,250	62,740	1,621,774	135,148	2.4
지급수수료	137,800	137,900	137,800	112,030	106,390	156,491	110,890	119,690	107,080	51,500	44,500	48,300	1,270,371	105,864	1.9
간사활동비	97,500	53,000	103,500			33,000		82,000	38,000	38,900	131,500	54,500	631,900	52,658	0.9
퇴직금적립	400,000	400,000	4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200,000	183,333	3.3
4대보험	343,844	505,794	343,843	183,662	183,662				227,197	227,197	228,072	228,072	2,471,343	205,945	3.7
2. 행사비	910,910		158,020	170,100	362,550		6,050	351,100		983,020	563,830	589,900	4,095,480	341,290	6.1
3. 조직활동비					1,894,800	737,230		146,800	6,000	30,000	7,000		2,821,830	235,153	4.2
4. 교육홍보비			110,100										110,100	9,175	0.2
5. 연대사업비	955,000	955,000	835,000	1,285,000	835,000	935,000	835,000	935,000	935,000	1,185,000	835,000	969,400	11,494,400	957,867	17.0
정기분담금	955,000	955,000	835,000	835,000	835,000	835,000	835,000	835,000	835,000	835,000	835,000	835,000			
기타				450,000		100,000		100,000	100,000	350,000		134,400			
6. 모금지출								230,000	1,000,000			3,035,000	4,265,000	355,417	6.3
계	8,299,264	6,480,418	6,584,743	4,793,312	5,299,081	2,937,821	2,032,990	5,111,260	6,892,457	5,699,387	5,230,922	8,303,472	67,665,127	5,638,761	100.0
수입	6,870,940	6,609,350	6,165,560	5,999,960	6,591,911	6,096,889	6,809,600	6,590,972	7,604,467	6,582,876	8,354,015	8,307,385	82,583,925	6,881,994	
결산(수입-지출)	-1,428,324	128,932	-419,183	1,206,648	1,292,830	3,159,068	4,776,610	1,479,712	712,010	883,489	3,123,093	3,913	14,918,798	1,243,233	

이월금 34,792,979

안건 자료

11기 감사 보고

2011년 11기 감사 보고서

감사 윤영철

- 우선 상근자의 공백과 활동회원들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활동을 한 간부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함
- 조직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건약 포럼이 상반기까지만 이루어 졌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체적인 조직 활동을 조직할 필요가 있을 듯
- 회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국 역시 활동회원들이 줄어들고,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지 못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은 한해
- 지부활동은 광전지부가 어려움 속에서도 왕성히 활동했던 것들을 평가
- 차기에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새로운 커뮤니티툴이 등장한 만큼 회원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근황을 파악해서 연락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제안함
- 정책 사업에 있어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에 관한 것 중에 집중해야 할 의제를 발굴할 것을 건의
- 4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동안 고생한 송미옥 회장과 오랜 시간 건약의 정책 핵심으로서 일을 해온 신형근부회장, 그리고 식지 않은 열정으로 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일한 모든 활동회원들에게 전 회원을 대표로 해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6일

안건 자료	회칙 개정(안)
--------------	-----------------

기존안	개정안	개정사유
제2장 회원 제6조 (가입절차) 자격을 갖춘 자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사무국장의 승인을 거쳐 입회할 수 있다. <u>중앙 집행위원회</u> 의 승인을	회원의 승인은 중앙 집행단위의 결정이 필요함.
제3장 기구 및 운영 제10조 (구성) 1) 중앙 집행위원회 산하에 <u>정책1팀, 정책2팀, 사무국, 조직국</u> 을 둔다.	1) 산하에 <u>정책실, 사무국, 조직국</u> 을 둔다.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제 2절 대의원 총회 제13조 2)의장은 <u>회장이</u> 수행한다. <u>총회 의장이</u> 수행한다.	집행단위와 대의원은 구별되며 따라서 대의원 총회는 총회의장이 수행해야 함.
제3절 중앙위원회 제16조 (소집) 1) 정기 회의는 <u>2개월 1회이상 중앙 위원장이 소집한다.</u> 제18조 (구성 및 의결) 1) 중앙 위원회는 회장을 의장으로 부회장, 집행, 지회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u>정책1팀장, 정책2팀2팀장, 사무국장, 조직국장</u> 으로 구성한다.	1) 년에 4회 이상 중앙 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1) <u>정책실장,</u>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제4절 중앙 집행 위원회 제21조 (구성) 중앙 집행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u>정책1팀장, 정책2팀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각 국 팀장</u> 으로 구성한다	1) <u>정책실장,</u>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제5절 조직국 제22조 (기능) 6)기타 중앙 위원회 또는 중앙 집행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7) <u>필요시 팀</u> 을	6)번 번호 중복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p>집행하며 필요시 부를 둘 수 있다.</p>		
<p>제 7절 정책팀 제24조(기능) 1) 정책1팀, 정책2팀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5)기타 중앙 위원회 또는 중앙 집행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집행하며 필요시 부를 둘 수 있다.</p>	<p>제 7절 정책실 1) 삭제 4) 필요시 팀을</p>	<p>조직개편에 따른 삭제와 이에 따른 번호 수정</p>
<p>제8절 임원 제25조(임원) 본 회은 회장, 부회장,</p>	<p>. 단 회장, 부회장은 대회적으로 대표, 부대표라 칭한다.</p>	<p>다른 단체에서 요청</p>
<p>제26조(선출) 1)회장, 수석 부회장의 선출 방법은 선거 관리 규정에 의한다.(회장은 수석 부회장을 지명하여 입후보한다) 5) 정책1팀장, 정책2팀장, 사무국장, 조직국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p>	<p>1)회장, 부회장의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5)정책실장,</p>	
<p>제27조(직무) 2)수석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권한을 대행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한다. 6)정책1팀장, 정책2팀장, 사무국장,조직국장 : 각 부서의 소관 업무를 주관하며 이를 회장 및 중앙 위원회에 보고한다.</p>	<p>2) 삭제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권한을 대행한다. 5)정책실장,</p>	<p>역할을 간결하게 정리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p>
<p>제6장 약정 제37조(가입 불허) 사무국장은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이 본회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질 때에 이를 심사하여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p>	<p>제37조(가입 불허) 중앙 집행 위원회는</p>	

안건 자료**12기 사업 계획(안)****12기 사업 기조(안)****회원과의 공감을 통한 새로운 약국 만들기와 공공성의 확장****1. 2012년 정국전망과 건약의 방향**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구독률은 77.9%로 종이신문 구독률 67.8%보다 10.1%포인트나 높았다. 이는 2년 전인 2009년 조사 때 종이신문 구독률이 74.3%로, 인터넷신문 73.1%보다 약간 높았던 것이 완전 역전된 것. 열독률 또한 인터넷신문이 종이신문보다 높았다. 종이 신문의 경우 '거의 매일' 본다는 사람이 39.6%에 그쳤지만 인터넷신문은 48.3%였다.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들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그 의미에 대하여도 그 지역, 그 나라 활동가의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 북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즉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유사한 사건이 발생 시 행동도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예로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에 맞선 99%의 반격"이라는 공통의 구호 아래 전 세계에서 국제연대운동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놓은 세계적 착취구조에 대한 전 세계 민중의 동시적 저항운동(대안운동으로 승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국제적 연대 운동이 가능한 토대가 이미 만들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적 연대운동과 같이 국제적 연대운동을 통하여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정세를 예측해 봄으로서 그 여파로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로존이 엄청난 부채로 인하여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2월 15일(현지시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유로존 위기 해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세계가 대공황이 강타했던 "1930년대와 같은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듯이 신자유주의가 구축해놓은 경제가 곳곳에서 침몰하고 있다. 미국은 이 문제를 풀기위하여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구잡이로 풀고 있으며 이 돈으로 월스트리트(위기의 주범인)는 돈이 될 만한 모든 곳에 투자를 일삼고 있다. 즉 위기의 주범에게 다시 위기를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유로존

은 재정통합을 하지 않은 기이한 형태로의 통합(유로라는 화폐만 공유하는)의 부작용으로 다시 전 세계를 공황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으며 당분간 위기가 해소될지 않을 것 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경제위기 및 많은 부채를 빌미로 긴축재정을 강제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사회복지비용을 삭감함으로써 내수경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재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투쟁이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더욱 격렬하게 발생할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북아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2012년 오바마의 재선을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므로 한국과의 한미FTA와 일본을 TPP(Tran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케 해 한-일-미 블록을 형성 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하여 중국은 중국-북한-러시아를 블록으로 형성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천연자원 확보를 위하여 군사력(최근의 항공모함 건조같은)도 증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미국이나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는 내수침체가 2011년보다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동북아는 상황에 따라 긴장고조가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출중심의 한국경제는 지금과 같은 고환율중심의 재벌도와주기 정책과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계속하면 2012년에도 주기적으로 경제충격이 발생할 것이며 지금과 같은 북한과의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은 진보정치와 시민사회노동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가늠하는 해가 될 것이다. 내년 정권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역동적인 정치· 사회적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정치적으로는 “반MB-한미FTA철폐” 사회적으로는 “양극화해소” 노동에서는 “비정규직철폐”가 주요한 슬로건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은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분열된 여당(박근혜당과 박세일이 중심이 된 당)과 대통합되거나 선거연합을 하는 야당과 1대1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제는 민주당을 얼마나 “좌”쪽으로 끌어낼 것인가와 “통합진보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여당은 MB의 그림자를 지우고자 하겠지만 2011년 재보선과 서울시장 재보선의 여론흐름이 지속된다면 참패가 예상되나 문제는 현재의 민주당을 대폭 변화시키지 못하면 제2의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합된 민주당지도부에 상당한 개혁적인 인물들이 대거 배치. 현재 민주당의 정책을 “좌”로 상당부분 회전시켜야한다. 이를 통하여 총선에서 야당이 성공하고 국회에서 대안적인 개혁적인 법안통과와 MB정부에서 이루어진 각종의혹사건에 대한 청문회(종편특혜, BBK 사건,4대강 등)등을 진행하면 대선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보선이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상”시리즈가 “여”나 “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정책으로 제시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적으로 누가 더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재벌개혁과 같은 경제민주화나 비정규철폐에 대한 정책 및 한미FTA철폐에 대한 태도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주

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약도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참여할 것이고 의약품 정책에 관한 내용과 201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약국의 모습과 약사서비스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결합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건약이 결합한 방식은 정책적 내용을 가지고 결합을 하거나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정치적 선언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여왔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공간속에서 정책적 결합이든 정치적 선언형태든 다른 형태이든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중앙단위에서 시행하는 정책내용에 대한 결합을 위한 고민과 결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인지를 고민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해왔던 한미FTA 철회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그

2. 보건의료 시장화 정책과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

제11기 사업기조는 의료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 운동이었다. MB정부가 보건의료에 가진 입장은 규제완화와 자본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의료민영화 이었다. 취임 이후부터 보여준 MB정권은 보건의료 시장화 정책을 중단 없이 진행해 왔다. MB정부의 보건의료 시장화 정책을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은 의료민영화 5대약법 추진이었다.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법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및 광범위한 영리행위 허용(MSO포함), 의료기관 채권법을 통한 사실상의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도 특별 자치도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2010년에 의료민영화 추진 과정이 여의치 않자 2011년은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 벗고 나서기도 하였다.

MB정부는 기어코 한미FTA를 기습적으로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한국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한미 FTA는 독립적 이의 절차를 비롯한 의약품 분야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허가-특허 연계조항 도입을 통한 특허권 강화가 이루어져 의약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접근성 차원에서 후퇴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한미FTA는 의약품, 의료분야를 포함하여 수많은 독소조항을 담고 있고 제대로 된 토론 없이 미국의 정치일정에 우리의 일정을 맞추어 나가는 아주 이상한 협상이자 비준이다.

더불어 MB정부는 국민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해 온 인물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앉혀 이미 10년이 넘게 안착하고 있는 건강보험 공단을 해체하고 예전의 조합방식으로 돌리려고 의협과의 협조 속에 노력하고 있다. 밖으로는 한미FTA 추진과 안으로는 공단을 위협함으로써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 운동진영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MB정부와의 투쟁을 임기 출범부터 진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의료민영화 5대약법 저지투쟁과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반대투쟁을 해왔고 도입저지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 지방

자치선거를 통해서 제기된 무상급식 의제를 기점으로 복지문제가 부각되었으며 의료분야도 공세적 표현으로서 무상의료를 슬로건으로 들고 나왔으며 내년 총선 대선을 겨냥한 무상의료 국민연대의 활동도 가시화 되고 있다.

3. 의약품을 둘러싼 갈등과 건약의 활동

건강보험 약제비 관련 제도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 기등재 목록 정비 철회와 특허만료약과 제너릭 약의 약가인하를 기반으로 하는 약가산정기준 개선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의 반대 급부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대체적으로 유명무실화한 상황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도 정부 스스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약가산정 조정이라는 카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의 연속이 아니라 재정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고 있는 정책의 변화를 진행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의약품 약국의 판매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될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전문가격사 선진화방안을 2009년부터 추진하였던 정부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우선 도입가능한 부분인 일반의약품 약국의 판매부터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종편 출범으로 광고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신문사와 방송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진행되었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일반의약품 약국의 판매 관련 사안은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 의약품 분류 문제, 의약품 안전성 문제, 심야, 휴일의 의료공백과 당번약국 문제, 약국서비스의 질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이번 국회에서 의약품 분류에 대한 약사법을 상정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의약품 슈퍼판매는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 약사회가 전향적인 협의라는 기존의 방침과 어긋나는 형태의 행보를 보임으로써 의약품 약국의 판매는 이 글을 작성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 와 있다. 2월 달 임시국회에서 제한적인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보건복지부와 대한 약사회가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 '2010년 상반기까지 의사 집단은 주로 정부의 정책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만 활동을 하였는데, 2010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생명보험사 건강검진 금지 조치',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의원의 백신접종 중단', '건강관리협회의 건강검진 중단 요구' 등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과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선택 분업 도입'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등 기존 입장도 단순한 주장 수준을 넘어 보수적인 시민사회단체를 끌어들이 본격적인 개입과 관철을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는데 2011년에는 노골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일반의약품 약국의 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건강보험공단 통합과 관련한 헌법소원 등 우려스러운 정도의 정치적 행위를 펼치고 있다.

건약은 계속 취약해지고 있는 활동역량의 상황 속에서 약제비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나 일반의약품 약국의 판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회 내부와의 갈등과 소통, 외부적으로는 시민사회 노조 등과의 설명회를 통하여

이 사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으며 야당과의 대화를 통한 약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유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4. 새로운 약국 만들기와 공공성의 확장

그동안 건약은 전체보건의료 진영의 과제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장에 동의하여 수 년 동안 이 기조를 가져왔고 내부적으로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가져가기 위한 과제로 의약품의 접근성 안전성 운동을 축으로 활동하여왔다. 수년 동안 약제비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필수약품 희귀약품의 가격과 공급문제를 둘러싼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 의약품 안전성 현황의 문제점과 제안 그리고 적색경보를 발행하여 시의 적절한 문제제기 등을 통해 건약이 얻은 성과는 많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속적인 정책 생산과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활동역량이 확보되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최근 1-2년간 건약의 핵심역량을 계속 재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몇 개월 동안은 상근자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최악의 상황도 맞이하였다. 그로 인하여 11기 출범당시에 제시하였던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는 슬로건으로 그치게 되었다. 더불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도 활동역량의 축소로 인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활동회원들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활동력의 편차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한 노력으로 상근자의 역할과 역량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여야 할 것 같다. 또한 세부적인 사안까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역량도 부족하고 과제는 산적하여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와 의약계에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하여 기획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하여 외부에 알려내는 활동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해결의 과제는 정부나 관계기관의 공으로 넘기면서.)

보건의료 전체 과제와 의약품의 접근성과 안전성 과제를 수행하다보니 건약 지부회원들을 포함한 일반회원들이 약국이나 자기 생활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특히 건약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약국 약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올 한해 일반의약품 약국의 판매 사안을 거치면서 더욱 들려오는 것 같다.

의약품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서 약국의 형태와 약국서비스의 문제까지 접근하고자 하였던 고민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노력이나 결과물은 없었다. 보건의료의 탈규제 상황에 직면하여 약사의 모습, 약국의 모습, 약사서비스의 모습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확보해나가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원들과 공감 하면서 결정하고 실천하여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현재 보건의료 운동을 구성하는 단위를 커다랗게 본다면 첫 번째로 의료피해 소비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들, 각 지역의 보건의료단체들(건약 등), 지역의 이해를 뛰어넘는 차원의 보건의료 운동 단체들(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 등), 지역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생협, 그리고 환자들 조직(건강세상네트워크 포함)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건약이 운동조직으로서 가진 장점은 약사로서의 장점을 그대로 반영한다. 약물에 대한 지식을 항시적으로 축적할 수 있으며 가장 접근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은 이러한 직능적 문제보다는 의약품 정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향후 6년제의 약학대학에 사회약학 과목들이 생겨나면서 앞으로 의약품을 포함한 약사(藥事)정책을 담당할 일련의 학자군이 생겨날 것이다. 그간 이러한 연구들을 국책연구원의 연구자들이 맡아 오면서 자유로운 목소리는 내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건약이 일정정도 이런 목소리를 정치화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향후 건약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확장되는 것은 조직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쉽지 않다.

건약은 약사대중 공공성을 발굴하고 이를 실천의 장으로 결집하고 동기화하는 운동에 관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방식은 직접적인 대시민 서비스도 제공함과 동시에 다 많은 약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슈화하는 간접적 방식을 함께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사업기조 타이틀을 ‘회원과의 공감을 통한 새로운 약국 만들기와 공공성의 확장’이라고 제안하였는데 건약이 새로운 약국의 모습과 약사서비스의 모습을 리빌딩하는 실천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약국의 모습이나 약사사회가 재구성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약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약 약국의 판매문제로 드러난 것은 의약분업, 약대 6년제 등 국민들은 약사들이 원하는 요구를 수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지만, 약사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고 정체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회의적 평가를 국민들의 건강권 차원에서(작게 보면 의약품 접근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약사 그리고 약사사회에 대한 새로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건약의 방향성 전환은 건약이 해왔던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측면에서의 정책적 활동의 축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약국약사들을 통해 그간의 정책적 제안들을 구체화 시키고 약사들 전문성의 영역에서 실천하려는 차원의 논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간의 정책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이어갈 틀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것을 약사라는 정체성 속에서 실현할 실천적 틀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2011년 대의원 총회를 맞이하면서 아이폰, 트위터로 상징되는 ‘스마트한 소통’에 대해서 주목한 바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비롯한 SNS는 2010년 지방선거와 4.27재보선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한바 있고 이미 20-40대에서는 조중동과 방송의 위력을 뛰어넘었다. 더욱이 지난 3년 동안 김제동의 토크콘서트를 시작하여 유명인들과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온오프라인 형태로 소통하고 멘토를 자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건약도 마찬가지이다. 1년에 2번 전국행사와 이런저런 형태로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갖지만 기본적으로 약국공간에서 많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과 SNS 이다. 사업을 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회원들과의 공감을 얻어나갈 때 더욱 힘을 받는다고 판단하며 그 도구가 인터넷과 SNS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SNS와 밀착된 활동을 12기에 주요한 사업기조로 삼으려고 한다.

다시 요약한다면 제12기는 기존의 보건의료 진영에서 수행하였던 보건의료 과제를 연대하

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접근성 과제를 기획능력을 발휘하면서 안정화시키고 회원과의 공감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약국과 약사서비스의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사업기조를 가져가고자 한다.

정책실 사업계획 (안)

1. 정책방향

- 지난 몇 년 동안 건약은 ‘의약품 공공성 확대’ 라는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의약품 안전성 운동 및 접근성 운동을 두 축으로 진행하여 왔다. 더불어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라는 공통적인 과제에 대하여 다른 보건의료 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대응 하거나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적색경보의 꾸준한 발행, 그 후속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토 및 대안마련,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한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후속 작업 및 노보세븐, 푸제온, 타미플루 등의 구체적인 약제의 공급을 위한 여론화작업 및 법적, 제도 마련차원으로 필수약품의 계획적인 공급에 대한 내용검토까지 진행하여 왔다.

- 또한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일반의약품 약국의 판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전의 안전성 영역을 뛰어넘는 논의들을 진행해오고 대응해왔다. 당번약국 의무화 방안, 심야 휴일 의료 공백에 대한 공공적 해결방안 촉구, 약국과 약사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고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더욱 많이 진행될 것이라 판단된다.

- 2012년은 총선, 대선을 포함한 정치의 해이자 수많은 담론과 과제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좁게 약사사회로 보면 일반의약품 약국의 판매로 촉발된 약사사회의 내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이고 약사회장 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약사 사회 내부도 정치적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의 투쟁도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적 과제로 만들어 공약화하는 노력들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 판단된다.

- 그동안 건약의 정책적 노력은 여러 형태로 성과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과제를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요구 등이 필요한 바 건약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정책생산을 하기보다는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성과물을 내오고 입장을 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물리적으로나 여건상 우리가 정책적인 작업에 투하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기획을 하고 토론회나 여타 형태의 사업들을 통하여 입장을 정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로 가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또한 제12기 사업기조에도 나타난 약국과 약사서비스의 모습이 어떠해야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설정과 노력 또한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요 사업

1)의약품 안전관리 모니터링

목표: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의약품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안임을 사회에 이슈화 하며 국가가 그 안전성 관리체계의 중심기관임을 알려낸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시의 적절한 대안제시로 인하여 의약품의 안전성이 계속 중요한 과제임을 부각시킨다.

사업내용 ;

- 정기적인 적색경보, 약자지결 발행 및 후속작업 (공공기관 및 제약기업의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follow-up 및 대응)
-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저술활동과 책자 발행
- 임상시험, 시판 후 조사(PMS), 재평가 및 오프라벨 마케팅, 의약품 허가 과정 전반에서의 문제점 모니터링 및 공론화작업

2)약제비 적정화방안 대응방안

목표: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포기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도입과 중단, 특허만료의약품 의약품의 일괄적인 가격인하등 재정을 중심에 두고 약가제도가 변화하는 현 상황에 대한 입장정리와 향후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입장정리와 대응

사업내용 ;

- 총선, 대선을 맞이하여 보험약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 마련
- 정당에 제시할 수 있는 약가제도에 대한 공약화 작업
- 관련 전문가나 단체와의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한 입장 정리와 발표

3)의약품 공공성 관련 사안

목표: 한미FTA 비준을 통한 의약품 제도의 변화, 일반의약품 약국의 판매로 촉발된 의료취약시간 공공센터의 도입과 공공 약국 논의, 약국과 약사서비스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논의와 입장 정리를 통한 대안 제시와 실천

사업 내용 ;

- 한미FTA폐기를 위한 지속적인 의약품 분야의 문제점 홍보와 선거를 맞이하여 정당과 후

보자에게 요구

- 약국의 형태와 심야와 공휴일등 취약 시간대에 일정 책임 질 수 있는 공공약국에 대한 논의와 대안 마련
- 필수약품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

조직국 사업계획 (안)

1. 사업방향

12기 사업기조인 ‘회원과의 공감을 통한 새로운 약국 만들기와 공공성의 확장’에 따라, 회원들과 공감하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약이 되도록, 회원들이 발 딛은 일상에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주요 사업계획

1) 월레포럼

- 많은 회원들이,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범위를 넓히고 회원들이 관심 있는 내용과 건약이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알아야하는 다양한 주제를 선별하여 진행
- 지부 및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TV나 SNS등을 이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넓히며, 회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할 예정(ex. 책 저자 초빙 혹은 해당 분야 전문가 초빙 등)
* 이는 중앙 뿐 만 아니라 지부에서의 프로그램을 중앙과 타 지부와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됨

2) 전국행사

- 전국의 건약 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로서 회원들이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평소에는 건약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회원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함(ex. 답사, 체육대회 등)
- 연 2회 상/하반기로 진행 예정

3) 회지발행

- 정기적인 회지 발행으로 회원들에게 건약의 활동 내용과 회원들의 소식을 갈무리하여 회원들의 두 손에 전달하며 건약 회원으로서 건약 활동에 공감하고 회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함
- 소식지로서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모습들을 회지에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공감할 수 있도록 참신한 기획으로 회지를 발행함

4) 뉴스레터

- 연2회 발행하는 회지에서 담지 못하는 시의적절한 이슈나 내용을 '나는 꼼수다'와와 유사한 방식으로 매달 동영상이나 음성파일등으로 촬영 및 녹음하여 해당 문서와 함께 회원들과 공유함
- * 2011년 8월과 9월 일반약 약국의 판매, 유럽의 병원약사 발전과정을 진행한 바 있음

5) 연대활동

- 건약이 지향하는 바를 추구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 및 사람들과 연대하도록 함.

6)약사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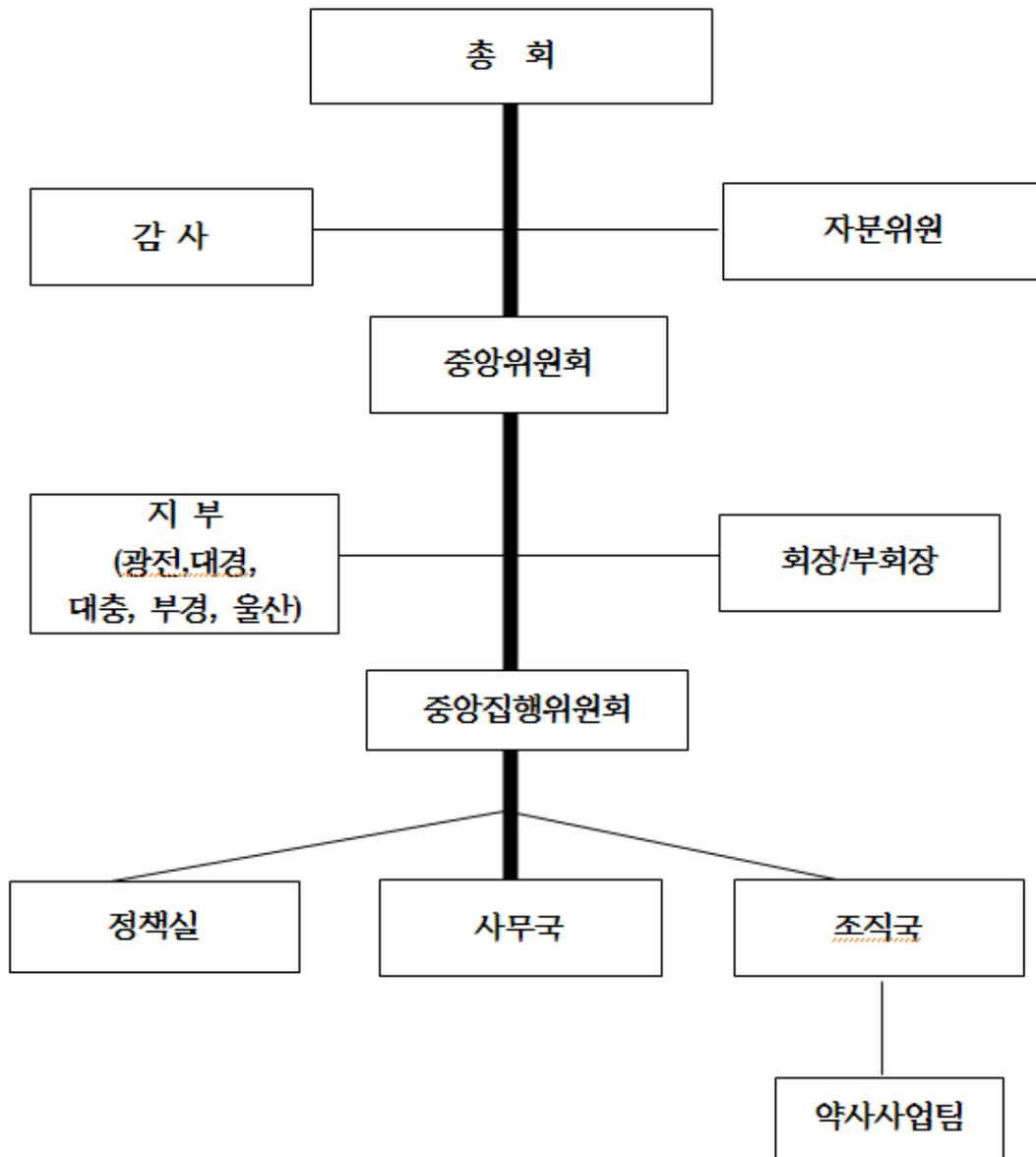
- 새내기 약사들을 비롯한 많은 약사들에게 건약의 내용들을 알리고 이를 통해 건약과 함께할 수 있는 회원들을, 건약의 내용들을 곱씹을 수 있는 많은 약사들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음.
- 이에 새내기&기존약사&약대생 등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임

7) SNS

- 현재 홈페이지, 건약 페이스북, 건약 페이스북 그룹, 건약 트위터, 건약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건약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음. 회원들이 다양한 경로로 건약에게, 지부에게, 회원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SNS를 통해 회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도록 함

안건 자료

12기 조직도



안건 자료**12기 1차년도 2012년 예산(안)**

1. 세입(안)

수입			
내역	연합계	월평균	비율(%)
1. 회비	57,996,000	4,833,000	47.8
회비	57,996,000	4,833,000	
2. 분담금	20,160,000	1,680,000	16.6
광전지부	5,760,000	480,000	
대충지부	3,720,000	310,000	
대경지부	3,720,000	310,000	
부경지부	3,720,000	310,000	
울산지부	3,240,000	270,000	
3. 회지후원금	3,600,000	300,000	3.0
4. 활동수입	4,370,000	364,167	3.6
행사회비 등	870,000	72,500	
모금	3,000,000	250,000	
인세	500,000	41,667	
5.기타	370,000	30,833	0.3
이자수입	370,000	30,833	
소계	86,496,000	7,208,000	
6. 전년이월금	34,792,979	2,899,415	28.7
계	121,288,979	10,107,415	100

(단위 : 원)

2. 세출(안)

지출			
내역	연합계	월평균	비율
1. 관리운영비	74,177,360	6,181,447	61.2
인건비	52,000,000	4,333,333	42.9
복리후생비	4,180,000	348,333	3.4
임대료 및 관리비	4,220,000	351,667	3.5
사무용품비	590,000	49,167	0.5
비품비	300,000	25,000	0.2
우편통신비	2,000,000	166,667	1.6
4대보험	5,727,360	477,280	4.7
퇴직금적립	4,800,000	400,000	4.0
잡비(수리비 등)	360,000	30,000	0.3
2. 제반 수수료	1,558,000	129,833	1.3
서버관리비용	380,000	31,667	0.3
금융결재원	528,000	44,000	0.4
MRN 관리	590,000	49,167	0.5
은행수수료	60,000	5,000	0.0
3. 행사비	4,496,000	374,667	3.7
전국행사	3,296,000	274,667	2.7
포럼 등	1,200,000	100,000	1.0
4. 조직활동비	1,010,000	84,167	0.8
회의비	650,000	54,167	0.5
기타	360,000	30,000	0.3
5. 교육·홍보비	1,778,460	148,205	1.5
회지발행	1,178,460	98,205	1.0
자료발행 및 구입	600,000	50,000	0.5
6. 연대사업비	11,620,000	968,333	9.6
기타	1,000,000	83,333	
정기 분담금	10,620,000	885,000	
7. 모금	3,000,000	250,000	2.5
8. 예비비	9,763,980	813,665	8.1
차기이월금	13,885,179	1,157,098	11.4
계	121,288,979	10,107,415	100
수입-지출	0		

3. 예산산출근거

1) 수입

- 회비는 작년 기준으로 10% 인상안으로 잡았음.
- 지부 분담금은 인상하지 않았음.
- 인세 수입은 지금 진행 중인 출판사업에 대한 인세 임.
- 정가 10,000원으로 책정하고 500부 인쇄한다고 가정하여 10%의 인세수입

2) 지출

- 지출항목을 세분화 하였음.
- 세출액은 작년기준 + 물가상승률 5%로 계산 하였음.
- 인건비는 2인의 상근자 체계로 설정하고,
급여200만원, 상여금100%로 계산.
퇴직금 및 4대보험료도 2인으로 계산함.
- 복리후생비는 기존 인건비 항목에서 지급되었던 점심식대와 간사 활동비를 포함
- 지급수수료는 MRM 회원 관리비용과 서버비용, 금결원 비용 등 제반 수수료를 포함 하였음.
- 서버비용은 트래픽 용량 1GB 추가시 50,000원이 추가된 금액 임.
- 정기분담금은 보건연합(805,000원), 나누리 +(30,000원), 무상의료국민연대 분담금 (50,000원) 임.

4. 세입, 세출(안)에 대한 추가적 사항

- 1) 전년 이월금을 제외한 2012년 당해연도 세입,세출만 계산하면 20,907,800원의 적자가 발생함.
- 2) 2012년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인해 운영상의 문제가 없으나, 차기년도부터 재정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앙 위원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1**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칙****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칙**

제정 : 1990. 1.21.
 개정 : 1992. 1.26.
 개정 : 1993. 2.28.
 개정 : 1994. 6.19.
 개정 : 1996. 2. 4.
 개정 : 1998. 2.22
 개정 : 2000. 2.20
 개정 : 2002. 1.27
 개정 : 2004. 1.11
 개정 : 2006. 1.15
 개정 : 2008. 1.20
 개정 : 2010. 1.17

회칙 전문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인류의 줄기찬 노력과 지혜는 조화로운 사회적 제도와 발달된 과학을 민중 모두의 것으로 하기 위한 기나긴 역사의 줄기를 이루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조상은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우리 주변의 자연을 이용하여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독특한 지혜를 발달시켰으며, 이를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실현시켜 왔다. 이제 이러한 정신과 지혜를 오늘 이어받아 과학의 자주성을 이루어 폭넓은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하여 진정한 민중적 제도를 건설해 나가야 할 때이다. 오늘날 보건 현실의 질곡이 되고 있는 상품 의료의 전횡 속에서 국민의 건강할 권리는 억압되고 올바른 약사의 역할 또한 부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약사로서 국민에게 온전한 건강을, 약사에게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약속하는 총체 보건의 실현에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첫째, 질병을 개인적인 운명으로 돌리고 수동적이었던 대다수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위한 운동의 주체로 자각하고 나설 때 국민 건강의 새로운 지평은 열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그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 내고 건강에 대한 권리를 자각하도록 돕는 일이 보건 의료인의 중요한 책무이다. 둘째, 약사 스스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자각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과 실

천 작업 없이는 우리의 과제는 성취될 수 없다. 셋째로 우리와 함께 목표와 실천을 같이 할 수 있는 보건 의료 단체 및 사회 단체와 연대, 협력을 굳건히 할 때 그것은 보다 앞당겨 질 수 있으면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이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광범한 약사들의 참여 속에서 그들의 양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보건 운동을 위한 제반 사업을 연구, 기획하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스스로 민주적 운영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총체 보건의 실현에 앞장서 나가고자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구현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총체 보건 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동참하여 약사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1) 총체 보건 확립을 위한 보건 의료의 올바른 제도적 정착에 기여하는 연구 및 실천 활동
- 2) 의료 소외 계층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진료 투약 및 제반 지원 활동.
- 3) 환경 보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인자의 배격을 위한 활동.
- 4) 전문 학술 연구 사업.
- 5) 회원의 친목과 조직 확대를 위한 사업.
- 6)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홍보 및 자료 발간 사업.
- 7) 본회의 목적에 관계되는 국내외 단체와 연대 및 교류 사업.
- 8)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제 4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5조 (자격)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약사로 한다.

제 6조 (가입 절차) 자격을 갖춘 자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사무국장의 승인을 거쳐 입회할 수 있다.

제 7조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본회의 운영 전반에 걸쳐 발의, 건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 2) 본회의 임원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본회의 활동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 4)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5)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1항과 2항의 권리를 제한한다.

제 8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 2)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활동 및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
- 3) 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 (탈퇴)

- 1) 탈퇴는 회원이 탈퇴 의향 구두 통보 및 문서(우편, 팩스, 이메일 포함)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탈퇴한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 3) 사무국은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연말정산 등 탈퇴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 구 및 운 영

제 10조 (구성) 본 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본 회의는 총회, 대의원 총회, 중앙 위원회, 지부 및 지회, 중앙 집행 위원회를 둔다. 중앙 집행 위원회 산하에 정책1팀, 정책2팀, 사무국, 조직국을 둔다.
- 2) 필요에 따라 중앙 위원회 산하에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중앙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한다.

제 1절 총회

제 11조 (소집) 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정기 총회는 총회 의장이 소집하며, 짝수 년 3월 이전으로 한다.
- 2) 대의원 총회의 의결 또는 회원 재적 1/10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한다.
- 2) 회장, 부회장, 총회 의장, 총회 부의장(2인 이내), 감사(2인 이내) 선출한다.
- 3) 당해 연도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의 심의, 의결한다.
- 4) 중앙 위원회 및 대의원 1/5이상이 제안한 중요 사안에 대한 토의 및 의결한다.

제 2절 대의원 총회

제13조 (소집) 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정기 대의원 총회는 홀수 년 3월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 2) 의장은 회장이 수행한다.
- 3) 중앙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기능) 대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당해 연도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의 심의, 의결
- 2) 부회장 및 대의원 유고 시 직무 대행자의 보궐 선거
- 3) 중앙 위원회 및 대의원 1/5이상이 제안한 중요 사안에 대한 토의 및 의결
- 4) 3)항에 의해 집행된 사안에 대한 심의
- 5)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 의결

제15조 (구성) 각 지부 및 지회에서 직접 선출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3절 중앙 위원회

제16조 (소집)

- 1) 정기 회의는 2개월 1회 이상 중앙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임시 회의는 중앙 위원장 또는 중앙 위원 재적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 3) 중앙 위원회는 재적 중앙 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7조 (기능)

- 1) 중앙 위원회는 대의원 총회가 열리지 않는 평상시의 의결 집행 기구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있어서 주요 원칙, 활동 사항 등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 2) 고문 및 자문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회 운영에 반영한다.

제18조 (구성 및 의결)

- 1) 중앙 위원회는 회장을 의장으로 부회장, 지부장, 지회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책1팀장, 정책2팀장, 사무국장, 조직국장으로 구성한다.
- 2) 중앙 위원회는 출석 중앙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단, 중앙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중앙 집행 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 4절 중앙 집행 위원회

제9조 (소집) 회의는 월 1회 이상 중앙 집행 위원장(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기능)

- 1) 중앙 위원회 보좌
- 2) 중앙 위원회 결정 사항 집행
- 3) 전국 회원의 공동 참여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의 범위 내에서 시급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집행

제21조 (구성)

- 1) 중앙 집행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정책1팀장, 정책2팀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각 국 팀장으로 구성한다.
- 2) 회원은 누구나 중앙집행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제 5절 조직국

제22조(기능)

- 1) 회원 확대 및 관리 사업 집행
- 2) 통일 사업을 진행한다.
- 3) 학부연대 사업을 진행한다.
- 4) 산하에 약사사업팀을 둔다.
- 5) 신입회원 관리 사업
- 6) 월례회를 주관한다.
- 6) 기타 중앙 위원회 또는 중앙 집행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집행하며 필요시 부를 둘 수 있다.

제 6절 사무국

제23조 (기능)

- 1)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사항의 실무적 처리를 담당하며, 실무 사항을 입안 처리할 수 있다.
- 2) 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3) 회원 총화 단결 사업을 진행한다.
- 4) 뉴스레터 및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 5) 회원 연수 및 교육 사업 및 교육 자료 발간
- 6) 정기적인 회지 및 월소식지 발간
- 7) 홈페이지 및 회 홍보에 필요한 사항 기획 및 집행

제 7절 정책팀

제24조 (기능)

- 1) 정책1팀, 정책2팀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 2) 의약품 공공성 연구 및 실천사업
- 3)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 및 실천 사업
- 4) 산하에 의약품 안전성 팀, 의약품 접근권 팀을 둔다.
- 5) 기타 중앙 위원회 또는 중앙 집행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집행하며 필요시 부를 둘 수 있다.

제 8절 임원

제25조 (임원) 본 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2인 이내), 총회 의장, 총회 부의장(2인 이내), 중앙 위원장 및 중앙 위원 등의 임원을 둔다.

제26조 (선출)

- 1) 회장, 수석 부회장의 선출 방법은 선거 관리 규정에 의한다. (회장은 수석 부회장을 지명하여 입후보한다.)
- 2) 부회장 : 선출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된다.
- 3) 감사 : 선출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된다.
- 4) 총회 의장, 총회 부의장 : 총회에서 3인 이상의 추천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 5) 정책1팀장, 정책2팀장, 사무국장, 조직국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27조 (직무)

-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 총회 및 중앙 위원회 및 중앙 집행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 2) 수석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권한을 대행한다.
-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한다.
- 4) 감사 : 본 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 및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 5) 중앙 위원장 : 중앙 위원회를 소집,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관장하고 집행된 결과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 6) 정책1팀장, 정책2팀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 각 부서의 소관 업무를 주관하며 이를 회장 및 중앙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8조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 총회 의장, 총회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9절 고문 및 자문 위원

제29조 (추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중앙 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고문 및 자문 위원을 추대한다.

제30조 (기능) 회장 및 중앙 위원회에 대한 지도 및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회칙 제정 및 개정

제31조 (발의) 회칙 제정 및 개정의 발의는 중앙 위원 2/3 이상, 대의원 1/3 이상으로 한다.

제32조 (공고) 총회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33조 (의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 5 장 재 정

제34조 (재원)

- 1) 본 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 및 기타 수익 사업으로 조달한다.
- 2) 평생 회비는 당해 년도 책정된 월 회비 기준 100배의 금액으로 한다.
- 3) 연회비 : 당해 년도 책정된 월 회비 기준의 10배의 금액으로 한다.

- 4) 특별회비 : 본 회의 회원이 아닐지라도 특별 회비를 내고자 하는 경우는 사무국장이 판단하여 처리하며, 본인의 요구 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 회원의 회비는 중앙 예산을 회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35조 (지출) 재원의 지출은 의결된 예산에 의거, 본 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에 지출한다.

제36조 (회계 년도와 예산 결과)

- 1) 회계 년도는 1년으로 한다.
- 2) 예산 및 결산은 매 년 정기 총회 또는 대의원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6 장 약 정

제37조 (가입 불허) 사무국장은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이 본회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질 때에 이를 심사하여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38조 (상벌) 중앙 위원회는 필요시 회원의 상벌을 의결할 수 있다.

1) 표창

중앙 위원회는 회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한 회원 또는 지부, 지회 및 부서에 대하여 모범 회원, 모범 지부, 공로 회원 등의 표창을 할 수 있다.

2) 징계

중앙 위원회는 회장 이외의 중앙 집행 위원으로서 회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각 종 회의 참석 및 사업 집행에 불성실하거나 회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을 한 경우 근신, 감봉, 직위 해제 등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명

중앙 위원회는 본 회 회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에 현저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재적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 ① 제 2조 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가짜 약사 고용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한 영리 추구를 한 경우

제39조 (불신임)

- 1) 회장, 총회 의장, 총회 부의장, 감사에 대한 불신임은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 2) 불신임의 가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40조 (탈퇴시 권리 포기) 자의 또는 제명에 의한 탈퇴 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부 칙

제 1조 (효력)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인준) 지부장은 지부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인준한다.

제 3조 (관례 준수)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준한다.

참고 자료 2 광전 지부 2012년 사업 계획

□ 연대사업국

1. 건약 회원들이 참여하는 연대활동 모색하기

-진보연대 및 여러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회원 참여공간으로서의 연대활동을 모색하여, 건약 조직강화에 힘쓰며,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2. 약사회와의 연대강화

-시약사회, 도약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약계현안에 대해 건약의 역할을 찾는다

3. 키움과 틱움 지원사업

-2011년 성과를 이어받아.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지원하며, 의약품안전성교육을 실시한다

4. 전문가단체 연대

-건약, 건치, 민변, 언론노조와의 대표자모임을 통해, 지역사회복무의 방향을 찾는다

5. 약대학생회와의 유대

-6년제 전환 및 학생운동의 위기 속에서, 약대학생들에게 건약의 존재를 알린다

□ 보건의료사업국

우리가 추구하는 의약품의 공공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1. 경증질환 심야응급 진료 시스템 - 지자체에서 구축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고민하여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2. 약물 서비스 체계에 대한 고민 - 복약순응도,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의약품 폐기에 관련해 지자체에서 시스템 마련하는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3. 아동청소년 약물 부작용 관련 교육: 교육청과 협의하여 현황파악 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4. 의약품 적색경보를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 조직사무국

1월-총회(설날 피해서 유동적으로)

2월-영화

3월-신입약사교실

4월-영화보기

5월-4째주 봄 야유회

6월-월례강좌

7월-영화보기

8월-전체회원대상 소식지 발간

9월-영화보기

10월-4째주 가을 야유회

11월-월례강좌

12월-영화보기

- 올 한해 소모임 테마는 영화입니다. 가볍게 맥주 한잔 걸치면서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함께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르는 코믹,스릴러,여성,인권영화,애니메이션 다양하게 볼 생각입니다.

- 월례강좌는 월례회를 강좌형식으로 풀어갈 생각입니다.

회원님들의 관심사에 맞춰 진행할 예정입니다.(경제, 사회, 문화, 인문학, 약국경영학 등등) 일단 두 번으로 편성했지만 호응이 좋으면 차차 늘려갈 생각입니다

- 봄, 가을 야유회는 5월,10월 4째주 일요일입니다.

2012년은 5월 20일(5.27일은 석가탄신인 연휴), 10.28일 입니다.

- 올 여름 소식지 발간할 예정입니다.

회원님 동향과 지부 사업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1. 건약 페이스북에 놀러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담벼락에 회원들의 얘기를 남겨주세요 ^^



2. 페이스북 건약 그룹에 가입해주세요 ^^



3. 건약 트위터를 Follow 해주세요 ^^
 - id : @GoodPharmacists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3층 (우)110-500

전화 (02) 523-9752 팩스 (02) 766-6025

www.pharmacist.or.kr / kpkyp@chol.com